



# 용병 '그레~이' KIA 4강 이끈다



### 시즌초반 QS 9번, 잘 던졌지만 번번히 패전 이달들어 3연승 '호투쇼'... 4강 레이스 주도

지난 5일 두산전 7이닝 1실점, 지난 12일 LG전 7이닝 1실점 승리에 이은 3연승째다.

시즌 성적은 7승 9패(방어율 3.38). 26일 현재 다승부론 공동 8위, 탈삼진은 102개로 한화 류현진에 이어 단독 2위로 올라섰다.

그레이의 최근 3연승은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빛이 난다.

그는 올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잘 던지고 패하는 '불운의 사나이'이었다.

시즌 첫 3경기에서 23이닝 동안 2실점, 방어율 0.78의 놀라운 성적을 거뒀지만 '불방이 타선' 탓에 단 1승을 챙기는데 그쳤

다. 이때 '불운의 사나이'란 반감지 않은 별명도 얻었다.

그레이는 이번 3연승 이전만 하더라도 퀄리티 스타트(6이닝 이상을 3자책점 이하로 막는 것)를 아홉번이나 기록하고도 4승9패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시즌 16경기에서 45실점, 경기당 평균 실점 2.81개에 불과한 그에게 '패'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었다.

그는 유독 자신만 들어서면 침묵하는 팀 타선이 아쉬웠을 것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잘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됐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느냐"면서 "여러차례 그레이를 불러 위로의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오히려 괜찮다며 나를 위로하더라"고 말했다.

다. 잘 던지고도 번번히 패전투수가 됐던 그레이로서는 맥이 빠질 법도 하지만 자신의 패전보다는 팀의 부진이 가슴 아팠던 것이다.

1.3 선발인 김진우와 강철민이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4강행을 노리는 KIA로서는 그레이의 호투가 큰 힘이다.

지난해 시즌 도중 KIA 유니폼을 입고 한국무대에 데뷔한 그레이는 6승 6패, 방어율 3.93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올해는 KIA의 특급 예이스로 한국프로야구 무대에 완벽한 적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레이는 "주무기인 체인지업의 제구력이 좋아졌고 한국야구의 적응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개인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팀이 4강에 드는 게 우선인만큼 남은 시즌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한 승부욕을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4강행은 나에게 맡기 그래~이"  
'용병 특급 예이스' 세스 그레이(31·KIA)가 상쾌한 호투쇼로 4강 진입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그레이는 지난 25일 대구 삼성전에 선발출전해 6.2이닝 4안타 무실점으로 7-2 승리를 이끌어 냈다.

## 전남 골프회원권 소폭 상승 '알프스 소녀' 핑키스 한국팬 결으로

### 국제정 내달1일 기준시가 2월대비 1.1% 올라

전남지역 8개 골프장의 10개 회원권 기준시가가 소폭 상승했다.

국제정 8월1일자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8개 골프장 10개 회원권이 지난 2월 대비 평균 1.1% 올랐다. 그러나 전국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의 평균 상승률은 5.6%에는 크게 밑돌았다.

전남지역의 경우 나주 골드레이크 CC(일반회원) 기준시가가 지난 2월1일 1억1천700만원에서 8월1일 1억1천700만원으로 변동없었으며, 곡성의 광주CC는 우대회원이 4천950만원으로 똑같았고 일반회원은 3천250만원→3천300만원으로 50만원 상승했다.

화순의 남광주CC(일반회원)가 3천950만원→4천150만원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5.1% 상승률을 기록했고, 순천의 승주CC(일반회원)는 9천100만원→9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화순의 립덱900CC의 경우

일반회원은 6천450만원→6천550만원으로 소폭 오른 반면 VIP회원은 1억8천만원으로 변동없었다.

순천의 파인힐스CC(일반회원)는 1억6천200만원으로 2월과 같았으며, 함평의 다이내스티CC(VIP회원)도 1억2천150만원으로 변동없었다.

아크로CC(일반회원)는 8천100만원으로 2월과 같았고, 순천의 승주CC(일반회원)는 9천100만원→9천400만원으로 3.3% 상승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삼태힐스CC(일반회원)가 2천800만원→3천200만원으로 14.3% 올랐고, 태인CC(일반회원)는 4천450만원→4천550만원으로 50만원 상승했다.

전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상위 10개는 경기도 지역의 골프장이 싸늘이 깨다. 용인의 남부CC 13억500만원, 광주 남촌CC 10억6천400만원, 광주의 이스트밸리CC 10억6천400만원, 가평의 가평베네스트CC 10억2천600만원, 용인의 레이크사이드CC 9억2500만원, 여주의 렉스필드CC 8억5천500만원, 남양주의 비전힐스CC 6억6천500만원, 용인의 신원CC 6억1천700만원 등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 9월 한술오른 참가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핑키스(26·세계 랭킹 13위·스위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7일 "핑키스가 9월 내한, 2006한솔코리아오픈대회에서 국내 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핑키스는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9일 동안 송파구 올림픽공원 코트에서 열리는 한솔코리아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투어급 대회인 한솔코리아오픈은 2004년 창설 첫 해 '테니스 오장'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를 초청하기도 했다.



으며 1997~1999년 호주오픈 3연패 등 메이저대회 5회 우승을 포함, 통산 41회 우승을 차지했다.

발목 부상 등으로 2002년 10월 코트를 떠났지만 3년3개월 만인 올해 1월 재기에 나서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이탈리아오픈 단식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는 등 기량이 녹슬지 않았음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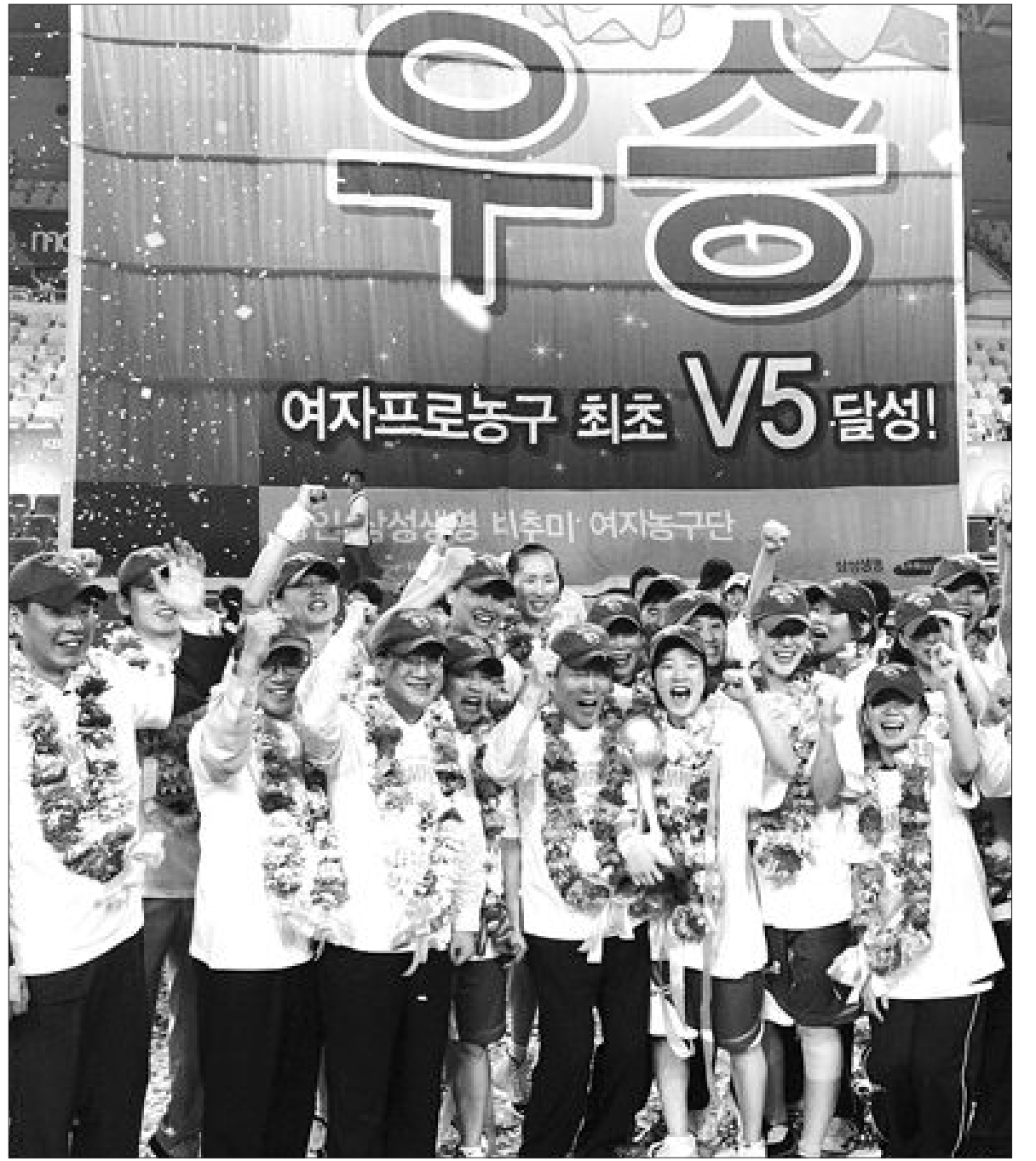
### 조선태권대 박광수

####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

박광수(조선태권 3년)가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냈다.

박광수는 27일 강원도 태백 육군에서 열린 남부대학부 미들급 결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여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국민은행을 누르고 우승한 삼성생명 선수단이 우승트로피를 안고 환호하고 있다.

## 삼성생명 '여름여왕' 됐어요

###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최종 국민銀 꺾고 5년5개월만에 정상... MVP 변연하

삼성생명은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최종 5차전에서 첫 우승을 노리던 천안 국민은행을 60-52로 제압했다.

2001년 2월 겨울리그 때 챔피언에 오른 뒤 좀처럼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삼성생명은 이번 챔피언결정전을 3승2패로 마무리하면서 여자프로농구 최다인 5개의 우승트로피를 수놓았다.

배수의 진을 친 최종전에서 양 팀은 1쿼터부터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듯 감삼수비로 맞섰고 호쾌한

장거리슛 보다는 골밑돌파에 이은 레이업과 자유투로 점수를 쌓으며 점진적 공격의 선봉은 변연하와 바우터스였다. 변연하는 상대 수비가 불면 골밑으로 파고 들었고 떨어지면 미들슛을 날리며 1쿼터에만 7점을 넣었다. 바우터스도 국민은행 스타파노바의 골밑 공격을 분쇄, 2득점에 묶어 두었고 2쿼터에는 페인트존에서 정확한 중거리슛을 날리며 8득점, 전 반을 마칠 때 29-26, 간발의 리드를 잡았다.

전반까지 17점을 몰아넣은 정규리 MVP 정선민의 분전에 확실한 주

도권을 잡지 못하던 삼성생명이 우승의 희미한 빛을 본 것은 3쿼터 박정은의 슈트 터지면서 부터였다.

전반 2득점에 그쳤던 박정은은 3쿼터에 들어간 지 45초만에 3점슛을 터뜨리며 공격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 박정의 승부가 계속되던 4쿼터 3분50초를 남기고 다시 3점리인 밖에서 슛을 성공시켜 55-46을 만들었다.

국민은행은 김지현의 3점포, 스타파노바의 골밑슛과 1분30여초를 남기고 전반 감삼수비로 추격에 나섰지만 노련한 삼성생명이 자유투만을 허용한 채 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경기결과	전남지역 8개 골프장의 10개 회원권 기준시가가 소폭 상승했다.	국제정 8월1일자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8개 골프장 10개 회원권이 지난 2월 대비 평균 1.1% 올랐다.	그러나 전국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의 평균 상승률은 5.6%에는 크게 밑돌았다.	전남지역의 경우 나주 골드레이크 CC(일반회원) 기준시가가 지난 2월1일 1억1천700만원에서 8월1일 1억1천700만원으로 변동없었으며, 곡성의 광주CC는 우대회원이 4천950만원으로 똑같았고 일반회원은 3천250만원→3천300만원으로 50만원 상승했다.	화순의 남광주CC(일반회원)가 3천950만원→4천150만원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5.1% 상승률을 기록했고, 순천의 승주CC(일반회원)는 9천100만원→9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화순의 립덱900CC의 경우
국제정	전남지역 8개 골프장의 10개 회원권 기준시가가 소폭 상승했다.	국제정 8월1일자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에 활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전남지역 8개 골프장 10개 회원권이 지난 2월 대비 평균 1.1% 올랐다.	그러나 전국 156개 골프장의 297개 회원권의 평균 상승률은 5.6%에는 크게 밑돌았다.	전남지역의 경우 나주 골드레이크 CC(일반회원) 기준시가가 지난 2월1일 1억1천700만원에서 8월1일 1억1천700만원으로 변동없었으며, 곡성의 광주CC는 우대회원이 4천950만원으로 똑같았고 일반회원은 3천250만원→3천300만원으로 50만원 상승했다.	화순의 남광주CC(일반회원)가 3천950만원→4천150만원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5.1% 상승률을 기록했고, 순천의 승주CC(일반회원)는 9천100만원→9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화순의 립덱900CC의 경우
테니스	'알프스 소녀' 마르티나 핑키스(26·세계 랭킹 13위·스위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7일 "핑키스가 9월 내한, 2006한솔코리아오픈대회에서 국내 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핑키스는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9일 동안 송파구 올림픽공원 코트에서 열리는 한솔코리아오픈에 출전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투어급 대회인 한솔코리아오픈은 2004년 창설 첫 해 '테니스 오장'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를 초청하기도 했다.	
태권도	조선태권대 박광수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대회	박광수(조선태권 3년)가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땀냈다.	박광수는 27일 강원도 태백 육군에서 열린 남부대학부 미들급 결	
농구	삼성생명 '여름여왕' 됐어요	여자프로농구 챔피언 최종 국민銀 꺾고 5년5개월만에 정상... MVP 변연하	삼성생명은 27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신세계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최종 5차전에서 첫 우승을 노리던 천안 국민은행을 60-52로 제압했다.	2001년 2월 겨울리그 때 챔피언에 오른 뒤 좀처럼 우승과 인연이 없었던 삼성생명은 이번 챔피언결정전을 3승2패로 마무리하면서 여자프로농구 최다인 5개의 우승트로피를 수놓았다.	배수의 진을 친 최종전에서 양 팀은 1쿼터부터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듯 감삼수비로 맞섰고 호쾌한